

‘광속이’로 알던 그녀의 반전...임화영을 위한 ‘팡파레’

첫 여우주연상 수상...앞으로의 가능성 인정

“책임감 가져야겠다...더 발전하라 주는 상”

스크린에서 기존 스타들을 만나는 재미는 크다. 오랜 경력과 함께 연기력, 흥행력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적인 ‘젊은 배우들’을 새롭게 찾는 기쁨도 이에 못지 않다. 때묻지 않은 연기가 주는 신선함은 물론, 새로운 스타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영화 팬들의 설렘을 자극해서다.

뉴스는 떠오르는 젊은 연기자들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이들의 연기관과 속마음 등을 솔직하게 들여보는 심층 인터뷰 시리즈 ‘영 스틸러’ (Young Stealer)를 마련했다.

이번 인터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 스틸러’의 첫 번째 주인공은 연기자 임화영(36)이다.

배우 임화영은 한동안 ‘광속이’로 불렸다. 지난 2017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김과장’에서 다방 레지 출신 경리인 오광속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랑스럽고 의리 넘치던 ‘광속이’ 이후 임화영은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선 제혁(박해수 분)의 동생 제희로, OCN 드라마 ‘트랩’에선 프로파일러 윤서영으로 각각 분하며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시켰다.

특유 단아한 외모에 갇히지 않고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작품은 지난 9일 개봉한 영화 ‘팡파레’ (감독 이돈구)다. ‘팡파레’는 예기치 못한 살인사건에 휘말린 다섯 빌런이 오직 살기 위해 벌이는 악몽보다도 더 끔찍하고 잔인한 하룻밤을 그린 본격 생지옥 스릴러 영화다. 임화영은 이 작품으로 지난해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인정받았다.

임화영이 ‘팡파레’에서 맡은 역할은 미스터리한 악당 제이 역이다. 제이는 잠시 들른 바에서 2인조 강조를 만나 인질이 되고, 2인조 강도가 부른 새로운 인물들이 벌이는 상황들을 지켜보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인물. 제이의 정체는 모르는 남자들은 제이를 약자로 보고, 상황이 꼬여갈수록 전복되는 남자들과 제이의 관계는 어딘지 모르게 통쾌한 반전을 안긴다.

임화영은 이 영화로 배우로서 생애 첫 상인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당시를 회상하며 “진짜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고, 더 발전하라고 주는 상이구나 했다”고 돌아다녔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깨부셔야 시청자 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다”면서 “30년 후에도 연기를 계속 하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앞으로 임화영이 보여줄 더 큰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이 더욱 기대된다.

-‘팡파레’가 개봉한 소감은.
▶너무 설레고 요새 많이 시기가 어려운 만큼 개봉이 감사하다.

-‘팡파레’ 제이는 임화영이 그동안 해온 캐릭터와 상반된다. 그런 점에서 제이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나.
▶‘팡파레’라는 제목을 봤을 때는 밝은 로맨스 장르의 시나리오였구나 했다.(웃음) 첫장을 열었을 때 제이가 차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는 장면이 묘사돼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하면서 읽었다. 첫인상은 신선하더라. 감독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나 보여주시려 하는 색깔이 뚜렷하게 시나리오 안에 녹아들어 있더라. 인상 깊었고 신선하게 느껴졌다.

-제이를 통해 악역에 도전해봤다. 악역의 매력은 무엇이었나.
▶제이를 연기하면서 환하게 웃었던 장면이 기억이 난다. 마지막에 제이가 총을 겨누면서 환하게 웃는데 현장에서 모니터를 봤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을 줄 몰랐다. 큰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통쾌하게 웃더라.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통쾌하게 웃고 있었구나’ 하면서 제이를 연기하며 즐거웠다는 것을 알았다.(웃음)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실감이 나는지.
▶전혀 몰랐다. 10주년인지 처음 알았다.(웃음) ‘벌써 내가 10주년이나 됐다?’ 했다. 일한지가 벌써 그렇게 됐더라. 그래도 열심히 한걸음 한걸음 걸어왔구나, 더 열심히 걸어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배우로서 가장 기쁘고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있다면. ‘팡파레’는 임화영에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당시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을 것 같다.
▶호명됐을 때 ‘네 정말요?’ 하면서 믿지 못했다.(웃음)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큰 상을 주셨다.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상을 받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다. 진짜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고, 더 발전하라고 주는

안 해온 캐릭터와 상반된다. 그런 점에서 제이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나.

▶‘팡파레’라는 제목을 봤을 때는 밝은 로맨스 장르의 시나리오였구나 했다.(웃음) 첫장을 열었을 때 제이가 차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는 장면이 묘사돼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하면서 읽었다. 첫인상은 신선하더라. 감독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나 보여주시려 하는 색깔이 뚜렷하게 시나리오 안에 녹아들어 있더라. 인상 깊었고 신선하게 느껴졌다.

-임화영 배우와 제이 사이 접점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실제 성격은 어떤가.

▶이제까지 연기했던 캐릭터들이 다 제 안에 다 있다. 이번에도 제이의 제이스러운 부분을 깎아서 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닮아있지 않을까 한다. 어떻게 보면

▶참다 한 번에 터뜨린다는 점이 비슷하다.(웃음) 이들이 제이에게 하는 행위 자체가 어설피고, ‘애네가 지금 누구인줄 알고 이러는 건가’ 하는 시선으로 보는 게 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참다가 터뜨리는 건 닮은 것 같다.(웃음)

-제이는 ‘팡파레’에서 유일한 여성 캐릭터다. ‘유일한 여성 캐릭터’라는 점이 배우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그리고 ‘팡파레’라는 제목이 결국 제이를 위한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이와 제목을 어떻게 연결하려 했다.

▶여자 혼자, 남자 네명, 여성과 남성 이런 걸 생각해보지 않았다. 감독님이 제이를 통해 전달하시려는 메시지가 명확했고 ‘왜 너희들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라는 대사가 혼자 여성이었던 제이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었던 메시지 같

다. 또 ‘팡파레’는 축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울림 등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이는 킬러라는 역할을 즐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다. 킬러라는 역할을 즐기기 때문에 제이에겐 축제이고, 재밌는 광경이라 봤다. 제목과 제이가 잘 매치되는 것 같다.

-제이를 통해 악역에 도전해봤다. 악역의 매력은 무엇이었나.

▶제이를 연기하면서 환하게 웃었던 장면이 기억이 난다. 마지막에 제이가 총을 겨누면서 환하게 웃는데 현장에서 모니터를 봤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을 줄 몰랐다. 큰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통쾌하게 웃더라.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통쾌하게 웃고 있었구나’ 하면서 제이를 연기하며 즐거웠다는 것을 알았다.(웃음)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실감이 나는지.

▶전혀 몰랐다. 10주년인지 처음 알았다.(웃음) ‘벌써 내가 10주년이나 됐다?’ 했다. 일한지가 벌써 그렇게 됐더라. 그래도 열심히 한걸음 한걸음 걸어왔구나, 더 열심히 걸어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배우로서 가장 기쁘고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있다면. ‘팡파레’는 임화영에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당시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을 것 같다.

▶호명됐을 때 ‘네 정말요?’ 하면서 믿지 못했다.(웃음)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큰 상을 주셨다.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상을 받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다. 진짜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고, 더 발전하라고 주는



상이구나 했다. 그 상은 우리 ‘팡파레’ 팀을 대표해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영감을 주는 배우가 있다면.

▶저는 메릴 스트립을 진짜 좋아한다. 다양한 정말 색깔을 담고 있고 철학이 있는 배우다. 하나의 역할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색깔을 갖고 있는 배우더라.

-‘팡파레’를 보지 못한 관객들에게 관전포인트를 짚어준다면.

▶‘팡파레’를 선입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보시기 어려운 시기지만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는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제이를 중심으로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각 캐릭터들의 상황을 따라가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한다.

전소미, 가요대전 합류...22일 컴백 확정

Z세대 대표 아이콘



가수 전소미가 7월 가요계 컴백

백 대전에 합류한다.

14일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공식 SNS를 통해 전소미의 발매 소식이 담긴 케임슨 이미지를 기습 게재하며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공개된 이미지 속 전소미는 한층 더 성숙해진 비주얼로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라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더불어 ‘2020 07 22 6PM’이라는 발매 일자가 담겨 있어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전소미의 신곡 발표는 지난해 6월에 발매한 데뷔 싱글 ‘버스데이’(BIRTHDAY) 이후 1년 만이다.

광고, 예능, 유튜브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며 범접할 수 없는 ‘Z세대 대표 아이콘’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전소미가 이번에는 어떤 콘셉트로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소미의 신곡은 오는 22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베일을 벗는다.

원더나인, 세 번째 EP ‘턴 오버’ 발매

내일 언론 쇼케이스 진행

그들 원더나인이 내일 세 번째 미니앨범 ‘턴 오버’(Turn Over)를 발매한다.

지난 6일 원더나인은 로고 이미지를 시작으로 타임테이블과 트랙리스트, 콘셉트 포토, 뮤직비디오 티저 등 각종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미니앨범 ‘턴 오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또한 원더나인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달리 강렬한 모습을 예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콘셉트로 매력을 뽐내며 현재 컴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BC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원더나인’을 통해 데뷔한 원



나인은 놀라운 9명의 소년이라는 뜻을 담아 탄생, 데뷔앨범 ‘XIX’(Blah Blah)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다채로운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활동을 이어온 원

더나인은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종료 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컴백을 앞두고 있는 원더나인은 각종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16일 앨범 발매와 함께 언론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美 주크박스 국제영화제 수상작 ‘어게인’, 이달 말 개봉

예술적 영감 되찾는 과정 그린 뮤지컬 영화



웰메이드 힐링 뮤지컬 ‘어게인’(감독 조창열)이 오는 7월30일 개봉을 확정했다.

배급사 썬에스와이코마드는 14일 이를 알리는 동시에 영화의 따뜻한 분위기를 전하는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어게인’은 10년째 조연출을 하면서 감독의 꿈을 꾀했던 연주가 감독 임분이 좌절되자 고향에 내려와 방향을 하던 중에 마지막 권번 기생 허산옥을 발견하며 예술적 영감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 영화다.

이 영화는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 뉴콘텐츠 제작지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으로 개봉 전인 2019년 미국 주크박스 국제영화제(Jukebox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서울 국제영화제 최우수 한국영화상을 수상했다.

독립영화계 톱 여배우로 손꼽히는 배우 김예은이 주인공 연주 역을 맡아 노래, 춤, 연기까지 1인 3역을 소화했고,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2017)을 통해 헌신적인 어머니의 전형을 보여준 예수정이 연주의 어머니인 말순 역으로 출연했다.

또 ‘폭력의 씨앗’에서 주아 역으로 열연했던 김소이, ‘아내를 죽였다’에서 박형사역을 맡은 김홍표가 출연하며 영화에 첫 도전하는 걸그룹 멜로디데이의 리드보컬 안예인, 뮤지컬 ‘시타타’ ‘신과 함께·저승편’을 통해 뮤지컬계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이유가 첫 장편영화에 도전한다.

세훈&찬열 ‘10억뷰’, 아이튠즈 전세계 50개 지역 1위

그룹 엑소 세훈&찬열(EXO-SC)이 새 앨범 발매와 동시에 글로벌 차트를 점령했다.

지난 13일 공개된 세훈&찬열의 첫 정규 앨범 ‘10억뷰’는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일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르메니아, 바레인,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루나이, 불가리아, 캄보디아, 칠레, 코스타리카,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

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전 세계 50개 지역 1위에 올랐다.

이번 앨범은 한터차트, 신나라 레코드, 핫트랙스 등 국내 각종 음반 차트 일간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QQ뮤직과 쿠거우뮤직, 쿠위뮤직에서도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를 차지해 세훈&찬열의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세훈&찬열은 중국 QQ뮤직에서 앨범 공개 1시간25분 만에 관

매액 1백만위안을 돌파, 올해 발매된 한국 그룹 앨범 중 최단 시간 만에, 판매액 1백만위안을 달성한 앨범에게 부여하는 ‘플래티넘 앨범’ 등극 기록을 세우 눈길을 끌었다.

세훈&찬열의 첫 정규 앨범 ‘10억뷰’에는 트랜디한 분위기의 타이틀 곡 ‘10억뷰’를 비롯해 찬열 솔로곡 ‘Nothin’ (낫띵), 세훈 솔로곡 ‘온 미’(On Me), ‘착’(세이 잇(Say It)) ‘로데오역’(시차적응) ‘날개’ 등 힙합 장르의 총 9트랙이 수록돼 있다.